

국무회의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과거 국가권력이 불법적 행위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가치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바로 잡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를 밝히려는 까닭은 역사에 대한 평가가 미래를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미래의 바른 역사를 위해 과거에 대한 바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치 정점에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의 정당성은 바로 도덕적 신뢰입니다. 도덕적 신뢰가 없으면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없고 국민통합이나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